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Saturday Apr. 18, 2009



17일 한국미술 애호가들이 브루클린뮤지엄 저장고의 한국 고미술품을 감상한 후 자리를 함께 했다. 오른쪽이 뮤지엄 조앤 커민스 아시아아트 큐레이터.

한국 고미술품 22점 공개

브루클린뮤지엄 저장고 투어

“한국의 용은 독특해요. 일본이나 중국 용보다 더 유머러스한 모습이지요.”

“중국 용의 발톱은 다섯개입니다. 다른 나라는 속국의 의미로 발톱을 네개만 허용했습니다.”

17일 브루클린뮤지엄 저장고에 40여명의 한국 미술 애호가들이 모여 한국 고미술품을 감상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저장고 탁자에는 로버트 킬리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대표가 선

정한 삼국시대 말모양 확대에서 삼국시대 토기, 고려청자, 조선 백자, 분청사기, 19세기 혼수용 목기러기 등 고미술품 22점이 공개됐다.

워싱턴DC에서 온 컬렉터 제임스 피어슨씨는 19세기말 백자용 문향아리 문양에 나타난 용의 발톱에 대해 설명했다. 도예가 주디스 슈와츠는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청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발휘했다.

브루클린뮤지엄의 조앤 커민스 아시아아트 큐레이터는 14세기 고려불화 ‘아미타 삼존도’를 소개했으며 김정희 원광대 교수(고미술사)가 ‘아미타 삼존도’의 상징물에 대해 설명했다.

브루클린뮤지엄은 660여점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실은 1947년 마련됐으며 조선후기 석조문인상 등 20여점이 전시 중이다. 박숙희 기자